치열한 순위 싸움…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막판 굳히기냐, 막판 뒤집기냐

1위 SK, 2위 키움과 4경기차 여유
염경엽 감독 "우승 8부능선? 글쎄"

5위 NC, 6위 KT와 3.5경기차 유지
탈꼴찌 전쟁 한화-롯데 '장군 멍군'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는 많은 것을 바꿨다. 오리무중이던 순위 싸움의 틀이 얼추 갖춰가는 상황. 하지만 어느 팀도 방심하거나 포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팀당 열 경기 안팎을 남겨둔 시점, 막판 뒤집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의 추석연휴는 올 시즌 프로야구 순위표를 사실상 굳혔다. 11일까지 선두와 5위, 그리고 탈꼴찌 싸움은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지 못했다. 1위 SK 와이번스는 2위 키움 히어로즈에 3.5경기, 3위 두산 베어스에 4.5경기 차로 쫓겼다. 그 아래 5위 NC 다이노스는 6위 KT 위즈와 1.5경기 차였다. 하위 그룹인 9위 한화 이글스도 10위 롯데 자이언츠에 2.5경기 차로 근소하게 앞설 뿐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SK와 두산, NC와 KT, 한화와 롯데의 맞대결이 예정돼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NC는 12~13일 수원 KT전을 싹쓸이하며 3.5경기 차까지 달아났다. KT는 최근 컨디션이 가장 좋은 배제성~윌리엄 쿠에바스를 준비시켰지만, 크리스천 프리드릭~드류 루친스키 듀오에 막혔다. NC는 15일 창원 삼성 라이온즈전마저 챙기며 최근 7경기 6승1패의 상승세를 탔다. KT와 승차를 3.5경기 차로 유지하며 한숨 돌렸다. 시간은 KT보다는 NC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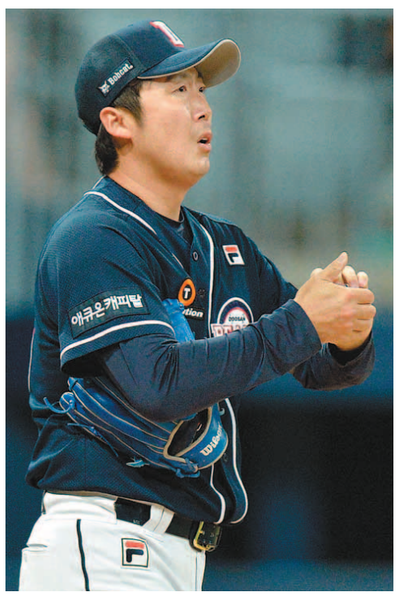
SK에게도 14일 인천 두산전 승리가 분수령이었다. 두산으로선 6-4로 앞선 9회말, '클로저' 이형범이 3안타로 동점을 허용하고, '베테랑' 배영수가 무투구 보크로 끝내기 실점한 것이 뼈아팠다. 만일 두산이 이날 SK를 잡았다면 두 팀간 승차는 2.5경기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제 양 팀은 4.5경기 차까지 벌어졌다. 19일 더블헤더가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탈꼴찌 대전'도 마찬가지다. 한화와 롯데는 14~15일 대전 맞대결에서 한 경기씩 사이좋게 나눠가졌다. 양 팀은 세 차례 2연전에서 모두 1승1패로 호적수였다. 여기에 7위 KIA 타이거즈와 8위 삼성의 0.5경기차 승부도 관심거리다. 올해 8위는 2021시즌 신인 1차 드래프트 때 사실상 전면드래프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존심과 실리 사이의 대결이 볼거리로 떠오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염경엽 SK 감독은 '정규시즌 우승의 8부능선을 확보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 확정 짓기 전까지는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철 KT 감독도 "우리 선수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감독인 나도 포기할 수 없다"며 "산술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상 위아래로 나란히 5.5경기차를 유지 중인 4위 LG 트윈스를 제외하면 어느 팀의 순위도 확실치 않다. 올 시즌의 결말은 기적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 팀은 어디일까? 팀당 10경기 안팎의 잔여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프로 20년차 2000이닝 이상을 던진 배영수(두산)의 끝내기 보크는 상대 팀, 관중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다. 스포츠동아DB

'끝내기 보크' 배영수 "욕 먹어도 할 말 없죠"

"다 내 잘못이다."

베테랑 투수 배영수(38·두산 베어스)는 14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서 끔찍한 실수를 했다. 선두싸움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빅 매치의 결정적 순간. 그러나 결과는 공 하나도 던져보지 못한 채 끝내기 보크로 팀의 6-7 패배였다. 현역 최다승(138승)을 기록 중인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예기치 못한 실수였기에 충격은 컸다.

맞대결에서 패한 결과는 뼈아프다. SK와 게임차는 4.5경기로 벌어졌다. 19일 인천에서 열리는 더블헤더를 통해 반전을 노려볼 수 있지만, 격차가 더 커진 탓에 추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 3위 키움 히어로즈의 추격도 거세다. 많은 것을 잃은 패배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아쉬움은 생각보다 오래갔다. 15일 잠실 LG 트윈스전을 앞두고 배영수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다.

6-6으로 맞선 9회말 1사 1·3루 상황에서 보크는 즉 실점을 의미한다. 배영수가 전한 상황은 이랬다. 포수 박세혁이 초구에 포크볼 사인을 냈다. 내야수들은 전진수비를 펼치고 있었고, 배영수는 1루 주자 정현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견제 동작을 취했다. 발을 완전히 빼지 않은 탓에 4심 모두 보크를 선언했다. 하루가 지난 뒤 배영수는 덤덤하게 실수를 인정했다. "잘못한 게 맞다. 1루 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실수를 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아쉬웠다"고 했다.

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아니었단다. 배영수는 "부담에 따른 실수는 아니었다"면서도 "모든 계산을 하고 올라갔다. 그 상황에서 막아내고 싶지 않은 투수가 어디 있겠나.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하지 않아야 할 실수였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말 마디마디에서 어떻게든 아쉬움을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NC, 게 섰거라' KT 선수들이 1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원정경기에서 8-6으로 이긴 뒤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 KT는 5위 NC와의 게임차를 3.5로 유지하며 5강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광현, 1072일 만에 불펜 등판…왜?

불펜 피로누적·하재훈 공백 대체
KT전 9회 깜짝 등판 솔로포 허용

SK 와이번스 에이스 김광현이 1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1072일만에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SK가 불펜 데이로 경기를 치르면서 투수진 소모가 컸고, 마무리 투수 하재훈까지 어깨 뭉침 증세로 등판이 어려웠던 터라 김광현이 직접 나섰다.

아웃카운트를 단 한 개 남겨둔 9회 2사 이후 6-7로 뒤진 상황에서 김광현이 마운드로 향했다. 2016년 10월 8일 인천 삼성 라이온즈전 이후 3년여만의 구원 등판이다. 당초 김광현은 하재훈의 공백을 채우려는 의도로 7회부터 몸을 풀었다. 세이브 상황이 성사되면 등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태훈(2이닝 21개)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서진용(1.2이닝 29개)의 투구수가 30개에 가까워지면서 김광현이 마지막 한 타자를 상대하기로 했다.



SK 김광현

김광현은 2018년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KS) 최종 6차전 연장 13회 구원 등판해 5-4 승리를 지킨바 있다. 당시에도 아웃카운트 3개를 책임지고 세이브를 기록해 팀의 KS 우승을 완성했다. 하지만 정규시즌은 다르다. 더욱이 선발 투수부터 필승조, 추격조까지 투수진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배된 SK 마운드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운용이었다. 김광현이 상대한 첫 타자 황재균도 "내 타석에서 상대 투수가 김광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첫 타자인 황재균에게 중월 솔로홈런을 얻어맞고 시작했다. 비거리 125m짜리의 큼직한 타구였다. 이로써 SK가 6-7로 근소하게 따라붙던 흐름 속에서 KT가 한 걸음 더 달아났다. 곧바로 장성우에게도 던진 직구도 공략 당했다. 초구로 던진 151km짜리 직구는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다. 김광현은 후속타자인 배정대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워 간신히 이닝을 매듭지었다. SK는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6-8로 고개를 숙였다.

인천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좌절은 금물…바람의 아들도 신인왕 못 해봤다

〈이종범〉



정재우의 오버타임

1993년 프로야구 신인왕은 삼성 라이온즈 양준혁이다. 고향팀 입단을 위해 '재수(상무 입대)'마저 불사한 괴물 루키는 106경기에서 타율 0.341, 23홈런, 90타점을 올리며 생애 단 한 번뿐인 영광을 차지했다.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타격, 출루율, 장타율 1위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홈런과 타점에서도 모두 2위에 올랐다.

당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됐던 그해 신인왕 레이스는 양준혁의 독주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국가대표 유격수로 잔뜩 기대를 모은 해태 타이거즈 이종범 역시 126경기에서 타율 0.280, 16홈런, 53타점, 73도루의 눈에 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도루 1위도 롯데 자이언츠 전준호(75개)의 몫이었다. '바람의 아들'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해 한국시리즈(KS)에선 이종범이 주인공이었다. 홈런은 없었지만 5차전 3도루를 비롯해 29타수 9안타(타율 0.310) 4타점 7도루로 해태가 삼성을 4승1무2패로 꺾는 데 앞장섰다. KS 최우수선수(MVP)로 우뚝 섰다. 팀 선배인 김정수(1986년)에 이어 신인으로는 역대 2번째 KS MVP의 영광을 안았다. 반면 양준혁은 25타수 4안타(타율 0.160) 2타점으로 생애 첫 KS를 마쳤다.

올해 신인왕 레이스에선 LG 트윈스 잠수함투수 정우영이 꾸준히 앞서나가고 있다. 경쟁자들을 한 명 한 명 따돌리더니 어느덧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15일까지 52경기에서 4승5패1세이브4홀드, 평균자책점 3.00이다. 한때 대항마로 거론된 삼성 원태인, 롯데 서준원은 소속팀의 부진과 맞물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정우영이 신인왕에 등극한다면 LG 소속으로는 1997년 이병규 이후 무려 22년만이다.

뻔한 결말을 예고했던 신인왕 레이스에 NC 다이노스 내야수 김태진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2014년 데뷔한 '중고신인'이라 그동안 주목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후반기 3할대 타율을 앞세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5위 경쟁의 분수령으로 간주된 KT 위즈와의 추석 연휴 맞대결 2연전 첫날(12일) 2회 1사 만루서 터트린 싹쓸이 3루타가 최근 김태진의 급부상만큼이나 인상적이다. 남은 경기가 얼마 없는 사실이 아쉽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인물은 대개 한 명이다. 그러나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무대장치와도 같은 하찮은 배역이라도 이제 막 그 길로 들어선 이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법이다. 그들 대다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정우영과 김태진에게 가려진 신인들 중에서도 '미래의 전설'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 신인왕 경쟁에서 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1993년 신인왕은 양준혁이지만, 이종범은 그에 못지않은 족적을 KBO리그에 아로새겼다. 또 그해 프로에 데뷔한 좌완투수 이상훈은 '야생마'라는 별칭과 함께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꿈을 좇는 선수들은 샛별보다 더 밝고 큰 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품고 있다.

jace@donga.com